

# 교회 민주주의 성찰

## "교회 운영의 바른 길을 모색하다"

2024년 6월 13일(목) 14시~17시  유튜브 중계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종로구 대학로19, 종로5가역)

### 민주적 교회 운영 사례

사랑누리교회

연덕교회

예인교회

주님의보배교회

###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배상필 국장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이재학 목사 (하늘땅교회)

### 전체 대화

진행 - 신동식 목사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건강성의 지표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도 연관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교회 운영이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목회자의 지도력과 성도들의 참여도 간의 불균형 등 교회 운영과 관련된 갈등은 교회 분쟁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수평적 의사결정,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등 '교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해 온 교회들을 초청해 시행착오 및 유익과 한계를 듣고, 교회 운영의 바른 길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2-794-6200 김현아 사무처장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 민주주의 성찰 좌담회 “교회 운영의 바른 길을 모색하다”

┃ 발간일 2024년 6월 13일

┃ 편 집 이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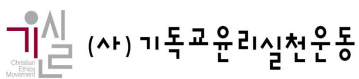
┃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http://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목사)

## Ⅰ 민주적 교회 운영 사례 나눔

민주적 교회 운영, 참 쉽고도 어려운 길 4p  
- 김정태 (사랑누리교회 목사)

민주적인 교회 운영 - 언덕교회의 경험 9p  
- 양환준 (언덕교회 운영위원장)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세상을 위한 교회 13p  
- 정성규 (예인교회 목사)

주님의보배교회 사례 발표 18p  
- 김형태 (주님의보배교회 목사)

## Ⅰ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적인 교회를 위한 제언 32p  
- 배상필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사무국장)

교회 운영을 관계적으로 고민하기 38p  
- 이재학 (하늘땅교회 목사, 작은교회연구소 소장)

## Ⅰ 전체 대화

Ⅰ 맺는말 -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 민주적 교회 운영, 참 쉽고도 어려운 길

김정태 (사랑누리교회 목사)

### 1. 소개합니다.

사랑누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서울서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2002년 12월 14일 개척되어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하나님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 이름은 '일산두레교회'였고(초대 담임목사 김희권) 이후 아동부를 포함한 전체 교인의 참여로 '사랑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랑누리교회는 개척될 때 다음 5개의 선교 목표를 정했습니다.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는 중보자 지향 교회, ②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③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④ 분단의 상처를 싸매는 교회, ⑤ 세계를 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 이 다섯 방향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선교 목표를 잘 이루기 사랑누리교회는 민주적 정관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개정해 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 길을 거쳐 오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때로는 쓰린 아픔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발자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2. 첫 삽을 뜨다.

일산두레교회 시절 첫 정관이 제정되었습니다(2004년 10월 17일). 5대 선교 목표를 명시했고, 토론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제직회<공동의회 순으로 권한이 정확히 규정되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운영위원은 출석 제직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15-20인, 임기 1년, 3년 연임, 1년 후 재선출 가능. 철저히 제직회 하위 기구로 자리매김토록 함).

초기 4년은 이 정관에 따라 늘 활발히 토론하며 흥겨운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 후 교인 수가 늘면서 운영위원회로는 한계가 왔습니다. 조직교회 즉 당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 임시목사 청원을 위해 3년마다 외부에서 대리당회장을 초빙, (2)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이므로 안수 받은 부목사 청빙이 어렵고(청빙하더라도 무임으로 남게 됨), (3) 안수를 받아야 할 전임 전도사 청빙도 불가능했습니다. 교역자 청빙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교회에도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당회를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작게는 교단 헌법이 방해물이었습니다. 교단 법은 줄곧 개혁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개혁적인 정관과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단을 탈퇴하기보다는 기존 교단 안에서 작게나마 조그만 발자국을 남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보고 누군가는 작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혹 만약 실패하더라도 ‘이 길은 아니었다.’는 작은 풋말 하나 세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크게는 인간의 권력 욕망을 제도로 제어하는 일, 즉 당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였습니다. 기존 교회의 당회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1) 당회가 제직회와 공동의회 위에 실질적으로 군림하는 권력 역전 현상, (2) 겉으로는 대의제이지만 안수 받은 항존직인 관제로 결국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독점적 귀족정치가 되는 현상, (3)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교회를 보게 되는 여론 왜곡 현상(특히 여성, 젊은 교우, 신입 교우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없음) 등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당회 구성 이전에 권한을 제한하는 정관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사람을 뽑은 후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 민주적 정관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여 당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당회원들이 정관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영적 실험에 나서자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2010년 4월 11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정관을 제정했습니다. 이 정관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꼭 필요한 사항들만 간결하게 담기로.** 변화무쌍한 목회 현장에 긴밀히 대응키 위해 정관에 없는 내용은 교단 헌법을 따르고, 불가피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 규정으로 보완.
- **운영위원회 안에 당회를 포함(열린 당회, 확대 당회).**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기존 교회의 당회들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15-20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는 당연직(담임 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장로)과 선출직(제직회에서 선출)으로 구분.
- **당회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대표(시찰, 노회, 총회 등)하고,** 당회원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사항을 논의하기로. 이때에도 상위기구에 성실히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명확히 함. 당회 회의는 헌법이 정한 최소한으로만 열기로(교역자 청빙, 교회보고 사항 등).
- **운영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로.** 기존 교단의 관행을 존중하고 교회의 상징성을 위한 방안. 혹 있을 불필요한 대표성 논란을 방지.
- **담임목사 임기제와 재신임제:** 6년마다 재신임을 묻되, 교회의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음. 청빙과 위임 시에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신임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하여 재신임 규정이 불신임보다는 교인들의 여론을 확인하여 책임 목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함. 먼저 재신임을 받고 통과되면 안식년을 시행토록.

- **장로 임기제와 재신임제:** 6년마다 재신임토록 하되, 1회만 연임 가능(안식년 포함하여 최장 13년). 담임목사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1년의 안식 후 재신임 투표를 갖도록. 투표 결과는 간략히 신임/불신임으로만 공표토록.
- **원로 목사는 추대하지 않음.** 호칭은 없지만 예우는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 **한 성(性)이 운영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여성들의 운영위원 참여를 보장.

### 3. 논란이 생긴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노회에 청원하여 ‘담임목사’(옛 명칭, ‘임시목사’)를 ‘위임목사’로 지위를 변경하고, 노회에 장로 청원하고 선출하고, 첫 당회는 2명을 임직 후 몇 년 뒤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정관 시행 후 8년 동안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사, 장로 재신임도 규정대로 시행하였고 당회도 운영위원회 안에서 잘 자리 잡았습니다.

9년째 접어드는 해부터 정관을 제정할 때 사전에 염려했던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관 개정 및 폐기 시도가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 노회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다른 교회와 비교되기 시작했고 당회의 권한이 축소된 것을 문제로 보게 됨, (2)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토론 과정이 비효율적이라 여기게 됨, (3) 교단 법대로 당회 권한을 복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교회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여김, (4) 당회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고 주장, (5) 무엇보다, 2/3의 찬성으로 안수 받고 임직한 항존직 장로의 직책은 다른 교인과 다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여김. 즉, 장로들이 다른 이들과 동일한 한 표를 행사케 하는 기존 운영위원회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함.

결국 개혁적 정관을 폐지하고 기존 교회의 당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다수의 구성원은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일에 관심 없어 보이던 분들까지 긴급히 모여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해 기존 운영위원회와 당회의 권한을 일시 정지했고 ‘비상대책위원회’(공식 명칭은 ‘사랑의 끈’)를 출범하여 논란이 되는 모든 사항을 모아 일일이 조사하였습니다(논의의 객관성을 위해 이후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배제하고 교우들로만 진행). 유포되던 소문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했고,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소집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두 의견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전체 회중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투표 결과, 당회 강화론은 16퍼센트의 지지를, 운영위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84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정관을 재정비하여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 방법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자 외부에서는 별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 4. 정관을 강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지만, 개혁적 정관을 지키려는 열망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사랑누리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색깔의 교회, 어떤 방향의 목회를 원하는지 모두가 재확인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새롭게 개정된 정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장로 임기를 6년 단임으로 하고 재신임 규정 자체를 없앴.
- 장로 숫자를 노회 파송 총대 이내로 제한(200-400명 세례교인은 장로 3인 파송 가능)
- 담임목사 재신임과 정관 개정 등의 중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 과반수와 함께 전체 교인의 재적 1/4 이상으로 함.
- 전임 교역자(부목사 전도사)도 3년 시무 후 1개월 안식을 명문화(휴가와 별도).
- 운영위원회 구성과 선출은 제직회 분과 및 직능별 모임에서 선출토록(상향식 구성).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 가능, 재선출 되려면 2년 후에.
- 권징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5. 쉽고도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

생각해보면, 민주적 교회 운영은 이론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겸손히 자세를 낮추어 들으면 되고, 굽은일에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면 되고, 합의된 결과를 모든 회의에서 친절히 설명하고,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른 교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며 승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가 권력욕을 자기부정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겠지만 그런 겸손함만 있으면 성령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의 소금 빛이 되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복잡한 제도도 필요없고 기존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쉽습니다.

이론과 달리 이런 기본 원리가 현실 교회에서 실현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 방해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개혁이 혁파해 버린 목사나 장로의 특권적 신분 의식이 부활하여 상존하고 있고, 민주적 협의와 토론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려는 독단이 존재하고, 의견 자체와 자신의 존재를 결합시켜버려 모든 사안마다 감정과 관계를 상하게 하는 미숙함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조차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오랜 친분으로 얽히고 얽힌 교우관계가 파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부적 미성숙은 교회가 일반 시민사회의 정치보다 못한 수준에 이르게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순간 순간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번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 둘 모두가 현실 교회에서 갖추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토론할수록 감정만 상하고, 제도로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교회와 맞지 않다고,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성령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을 늘 가시밭길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교회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처럼 되어버린 목사, 장로만으로 구성되는 당회 중심의 귀족정치로는 교회 밖 시민들을 설득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토론과 투명성에 익숙한 현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안을 교회가 시행해야 사회로부터 고대의 유물처럼 간주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정치의 낙후성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만이 회원인) 노회와 총회가 세습을 비롯한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재신임 임기제 같은 방식의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소통을 원활히 할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방법과 절차는 다를지라도 교회의 성령 민주주의가 계속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럴 때만 사랑의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누리교회는 지난 22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정관에 집중해 소개했지만, 여기에 담지 않은 모든 여정까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누리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역사를 써 왔던 모든 동역자들, 여건이 되지 않거나 교회를 향한 생각이 달라 중간에 이별했던 동역자들, 새롭게 마음 모아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동역자께, 사랑누리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동역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눔 2]

## 민주적인 교회 운영 - 언덕교회의 경험

양환준 (언덕교회 운영위원장)

### 들어가는 말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용, 도덕적 타락, 목회자 세습, 사회적 사명의 실종 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의 근원을 따져보면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및 평신도의 우민성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일차적 문제는 교권의 소유자인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조력하는 평신도의 우민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양자가 동시에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들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비민주적 교회 또는 권위주의적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유책은 교회의 민주화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불식되어야 하며, 평신도는 각성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덕교회는 교회 민주화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민주적인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

#### 1. 규약 제정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며 따라서 누구도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치를 배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내 권력이 특정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타락시켜 독재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탈을 경계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만이 전부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민주시민성 계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탈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로서의 제도화입니다. 민주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죄성에 의한 타락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데, 제도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욱이 제도는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으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언덕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에 바탕한 일탈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창립총회 때부터 교회 규약을 제정하여 이 제도에 의하여 교회 운영의 근간이 세워지도록 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교회 운영을 전담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2. 운영위원회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당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예배,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해 연말의 인사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운영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장은 평신도가 맡으며, 목회자는 운영위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선출된 운영위원 외에 여성위원과 청년 대표 등도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인 누구나 운영위원회 참관이 가능하며 의결권은 없지만 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첫 주에 모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토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 때가 모든 의견과 상황을 서로가 이해하려는 민주적인 노력이 꽃을 피울 때입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1년 동안의 경험은 바로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의견과 계획은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교회 게시판에 모든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3. 직분임기제

한국교회는 직분을 일종의 계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의 계급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인

재신임을 통한 직분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분 임기제는 리더십의 순환을 통해 다양한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영적 각성과 성숙을 바랄 수 있습니다.

#### 4.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공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투명성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현금 수입은 매주 공개를 하기도 하지만, 지출 내역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많다든지, 교회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비용이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작 이웃을 돕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덕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약에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계부를 이웃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도 나와 있고, 목사님들의 사례비도 알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규약에 명시해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정 지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일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무리한 빚을 낸다든지, 또는 돈을 지나치게 많이 적립을 해둔다든지 하는 일을 지양하게 되고 균형 재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언덕교회의 재정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설립 이래로 자립을 이루고 있고, 꾸준히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 5. 평신도 신학교육 및 평신도 설교

언덕교회의 평신도들은 공동체 성경읽기와 독서토론을 통해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신학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평신도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강단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소중한 믿음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묵상한 말씀을 소박하지만 진지하게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친숙하고 새로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 설교 후에는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을 통해서, 설교 내용에서 다소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묻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 설교, 공동 축도, 공동 성찬 등으로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담당하던 부분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평신도이며 동시에 모두가 목회자라는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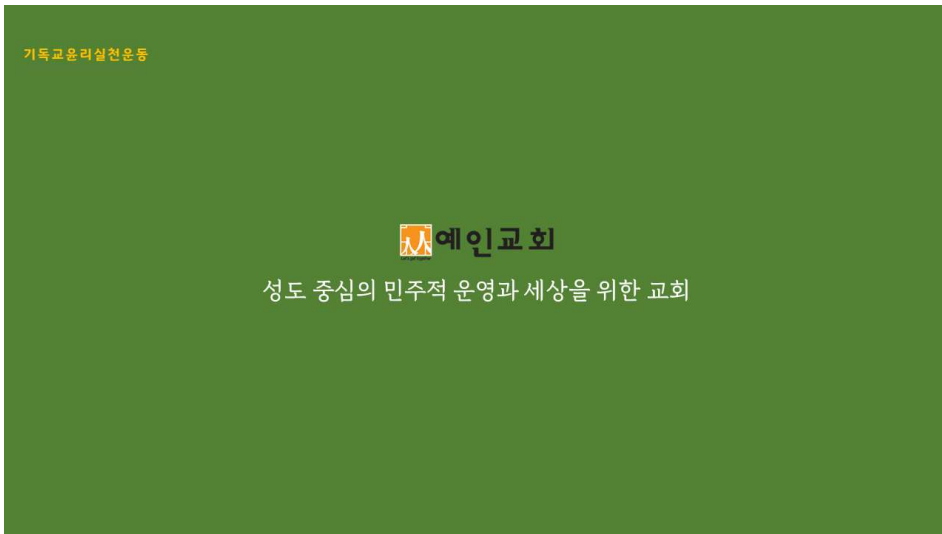
## 나가는 말

민주적 교회 운영은 의견수렴, 토론, 투표 등의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분열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덕교회 안에는 여전히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 사회적·정치적인 이해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의 연대와 생태계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sup>기</sup>신

##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세상을 위한 교회

정성규 (예인교회 목사)



◦ 2001년 '사고 난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의 기도 모임



◦ 2002년 상처 치료와 공동체 형성

-상식회복, 정체성과 교인상에 대한 고민

-민주적 운영 연습

-인생여정(나의 이야기)

◦ 2002년 7.21. 예인(예수님이 인도하는)교회 설립

-한국독립교회연합 소속

◦ **규약:** 운영위원회, 감사, 재정의 투명성과 운영, 임기제(교역자), 호칭제(교인), 건물 없는 교회, 정회원, 분립(개혁), 예봄 등



- **현황:** 교회 설립 22주년, 청장년 250명, 주일학교 70명  
분립(1), 개척(3)
- **사고 난 교회와 교역자의 만남**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 **규약(정관):**
  - 약속, 방향성, 원칙과 예방 등
  - 감시와 치리가 아닌 예방과 해결이 핵심
  - 간단하고, 느슨하게, 권한과 책임은 분명하게
- **임기제와 호칭제:**
  - 중간 점검(역할의 확인)
  -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게 함
  - 다시 출발, 짐을 나눠 짐



◦재정의 투명성:

- 헌금 내역 비 공개
- 사용: 교회 운영에는 최소, 세상을 위해서는 최대
- 헌금 상한제, 의미 있는 사용(보람)



◦건물 없는 교회:

- 주일 유희시설 활용
- 건물, 시설 유지 비용의 최소화

◦정회원:

- 성경에 따른 신앙(용어), 11주 공동과정
- 책임, 참여, 속의 민주주의, 세상을 위한 교회 등
- 교인됨(인생여정)

◦분립:

- 큰 교회 1개보다 작은 교회 여러 개가 필요
- 청장년 150명(로린 던바)-250명(지라드)
- 네트워크형 아둘람: 방과 후 공부방, 공유주방, 자녀교육, 은퇴 이후의 느슨한 공동체 등
- 아둘람 헌금 자체 사용, 월 2회 자체 예배



◦예봉:

- 예인 돌봄, 300만원 2회 지원
- 물질의 선순환(지명 헌금)

◦익명의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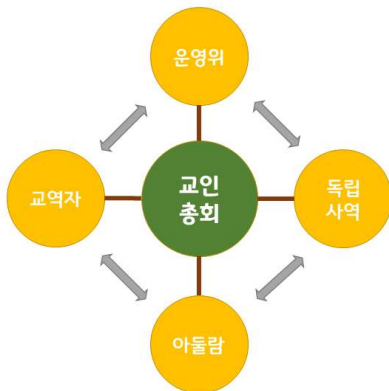
- 익명화 된 그리스도인(탈출한 교인, 탈 교회, 가나안 성도 등)
- 1/3이 돌아갈 교회를 찾는다!?
- 익명화 과정 중인 그리스도인(교회내, 명목상 교인 등)
- 중대형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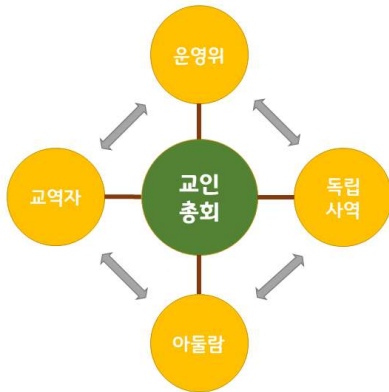


## 조직과 제도



- **교인총회:**
  - 최고 의사결정 / 정기, 임시
- **운영위원회:**
  - 교회운영 사역
  - 운영위원장(교회의 대표)
  - 7인, 2년 단임, 여성 2-3명
- **독립사역:**
  - 계획과 예산, 집행의 독립, 재정의 40%
  - 나눔, 선교, 대외협력, 교육 등

## 조직과 제도



- **교역자:**
  - 전임, 파트타임으로 예배, 설교, 심방, 성경공부와 기도회 사역 등
- **아들람:** 교회 속 교회
  - 속의 민주주의 현장
  - 유형: 교제 아들람(11), 네트워크형 아들람(2)
  - 역할: 아들람 주중 예배(공예배), 지명 방어, 흠어지는 예배, 아들람 주일, 엠티, 아들람 헌금 전액 사용 등
  - 꿈: 은퇴 이후로 이어지도록





◦ **경험 부족:**

- 민주적 삶에 대한 경험이 없다
- 대화보다 리더십(명령, 과제중심) 의존
- 사회(정치)에서는 보수적, 교회에서는 개혁적

◦ **초기 벽:**

- 교역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 돈을 의존하는 습성을 버림 등
- 교인은 누구나 1/N

◦ **파행 극복:**

- 발언 강자와 약자, 대화의 지형도
- 민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 교역자의 권위(최종 검열, 신학적 조언의 함정 등) 의식
- 민주적 운영의 벽, 또 다른 세상으로서 교회**



◦ **대의가 아닌 속의:**

- 대부분의 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
- 한국 정치와 닮았다(대통령 중심제)
- 속의할 줄 모르는 문화(불안)
- 뿌리 없는 민주주의

◦ **승산이 아닌 공의:**

- 승산을 위한 교회운영
- 민주적 운영으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 중산층(화) 교회

◦ **소그룹이 중요:**

-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 보다
- 뿌리인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 부재



[나눔 4]

## 주님의보배교회 사례 발표

김형태 (주님의보배교회 목사)



### — 발표 순서

1. 분립개척
2. 전원교회
3. 온가족예배(세대통합예배)
4. 온라인 새벽기도회/주제 특강
5. 시행착오
6.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1. 분립개척



**주님의보배교회비전**  
(2006년 설립 당시)

1. 사명선언문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신학을 기반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함께 자라감을 통해 가정과 사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2. 핵심가치
  - 1) 주일 강단과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 2) 동일한 믿음과 신앙고백에 근거한 성도들의 하나됨
  - 3)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따른 섬김과 성도간의 온전한 사귄
  - 4) 성경적 가정교육을 통한 신앙의 올바른 전수
  - 5)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통한 전인교육과 양육, 영혼과 사회를 품은 복음 전도
3. 실천 지침
  - 1) 주일과 일상생활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돕는 교회
  - 2) 평신도를 구비시켜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교회
  - 3) 새 생명과 새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
  - 4) 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 5) 성경적 교회상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 6) 연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교회

주님의보배교회비전  
(2006년 설립 당시)

예배의 회복: 온가족예배

성찬의 회복: 월 1회 성찬

직분의 회복: 서리집사제도 폐지, 목회와 행정의 분리

몸뚱의 회복: 교우회의, 운영위원회

### 강단교류 주일



Kosin Press

2023년 5월 31일 · 🌐

두레·나눔·주님의보배·하나두레 4개 형제교회, 직분자 모임 워크숍  
4개 교회 공통 유산 조명 함께 연합활동·발전방안 논의



KOSINNEWS.COM

두레·나눔·주님의보배·하나두레 4개 형제교회, 직분자 모임 워크숍 - 고신뉴스 KNC



---

## 2. 전원교회









### 3. 온가족예배(세대통합예배)

#### 예배순서

인도자 김형태 목사  
설교자 김형태 목사

<b>예배로 나아감</b>			
찬양		다함께	
<b>예배로 부름</b>			
0 예배의 초청	인도자: 우리의 도움은 다함께: 찬지를 지으신 영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 124:8)	인도자 다함께	
0 기원		인도자	
0 영광찬송	찬송가 6장	다함께	
0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b>어린아이들이</b>			
신계영 교육		다함께	
죄의 고백	인도자: 하나님께서 주의 영지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함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인도자 다함께	
올서 선포		인도자	
감사찬송	찬송가 445장	다함께	
대기도		이희현	
<b>어린아이들이 말씀하심</b>			
0 성경봉독	행 18:12-17 (다함께 자기에서 읽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 줄로옵시다.)	서일향	
0 설교	사도행전장48: 바울의 고침도 사역 2 갈라오와 소스데네	설교자	
0 성가		인도자	
0 자녀축복		자녀들	
0 다행 및 찬양	그 선한 빛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안에서 우린 함께 계서, 사랑 또 천후가 날 새우며.	김지동	
0 감동선언		설교자	
<b>어린아이들과 함께 성도와 함께</b>			
0 기도		인도자	
0 회회송		다함께	
0 교제		다함께	
□ 표는 일에서 주세요, 몸이 불만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 보배알림

##### 광고

1.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양육에는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
3. 저종교 장로님과 송영란 권사님이 연석 기도를 마치시고, 교회를 복귀하셨습니다.

##### 우리는 믿음의 잘 들어오! - 어린이 설교 리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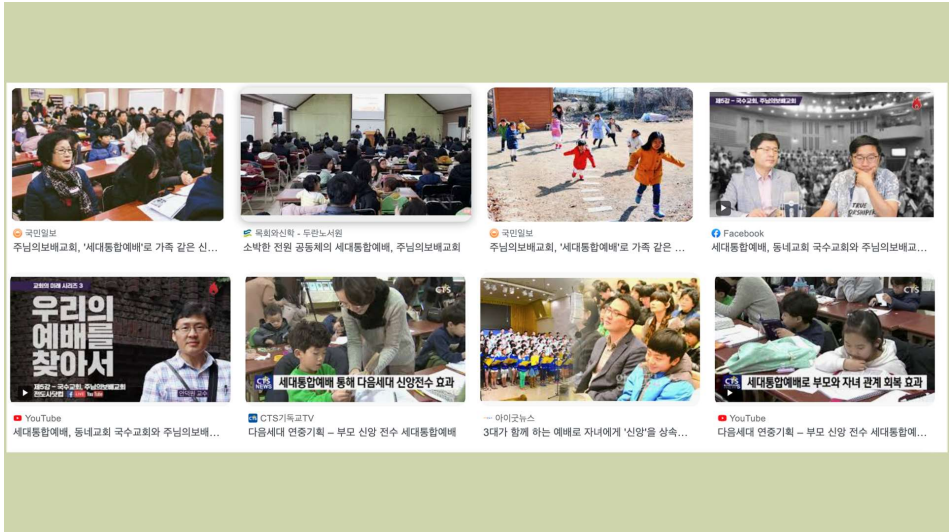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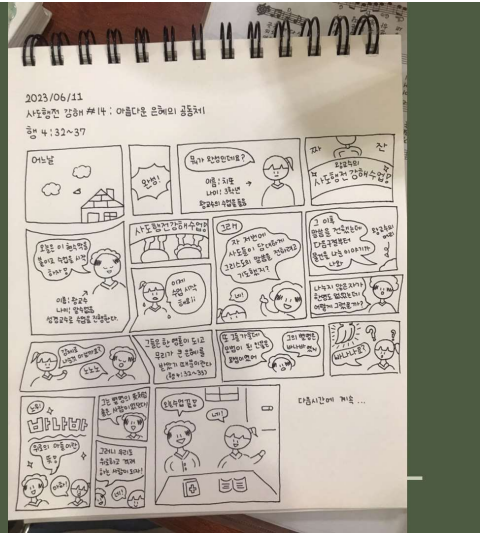
길리오는 OO 형제의 가장 큰 사이이기도 했던 율복자 000의 형제로서 교린도의 총독으로 새로 취임해 왔습니다. 율복자들은 그에게 배움을 고소했고, 길리오는 이를 유대인 내부의 일로 여기고,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본질이 허뿔 최담장 0000를 잡아 범정 앞에서 태웠고, 길리오는 이 일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교회가 00명이 의해 보호를 받게 된 것을 알시합니다.

예찬 6/9: 허정란 장영아 6/16: 고여진 권익래 금주 설거지 6구역

연말일정							
6/9	오후모임 및 출근행사						
6/16	세대별 모임(가족과 교회)						
6/23	교우회의						
6/30	주보배 특강(광명인 장로님) 가정 주일(오후 모임 있음)						
예배 & 봉사 담당자							
설교	대표기도	성경봉독	봉헌	가족복송	설거지	안내	
6/9	김형대	김은영	박의철	김희연	홍민수	1구역	
6/16	김형대	광성훈	박의철	김희연	김태식	2구역	
6/23	김형대	이현희	홍유빈	김지애	김용재	3구역	
6/30	김형대	장경덕	홍유빈	홍희재	-	4구역	
지나주 출석 현황							
장년	장녀	중고	초등	영유	어린이	방문	합계
45	8	6	15	4	2	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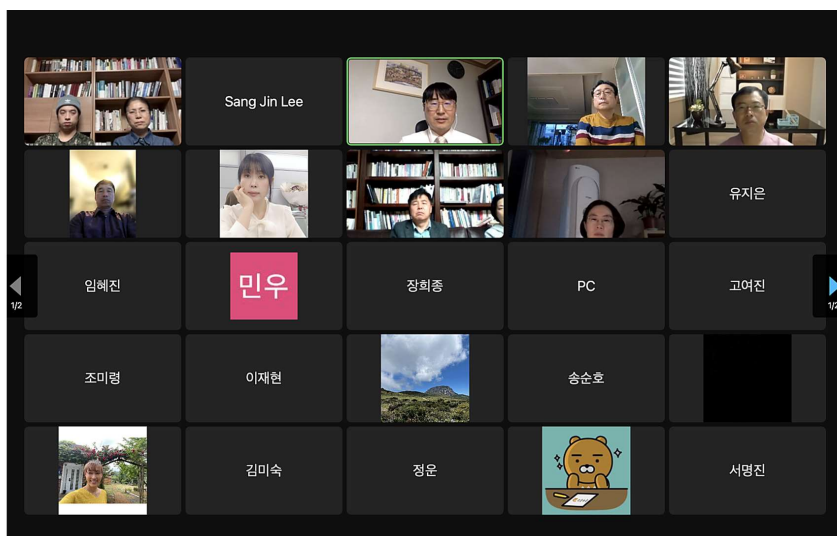




## 4. 온라인 새벽기도회/주제 특강

6월 2024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7	28	29	30	31	1	2
3	4 정병오	5 정병오	6 현종일	7 이상진	8	9
10	11 한이수	12 김형태	13 서명진	14 정경덕	15	16
17	18 김형태	19 김형태	20 이의현	21 이의현	22	23
24	25 한이수	26 이의현	27 김태열	28 김형태	29	30
1	2	메모				





---

## 5. 시행착오

- 1) 두 번의 목회자 사임 과정에서 큰 갈등과 아픔을 경험함
  - ✓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목회자 재신임 투표
- 2)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방문하고 등록했으나 정착을 못하고 떠난 가정이 많음
- 3) 지역 교회로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함

## 6.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 고촌 지역 취약 아동 돕기



### 축복 축구교실





## 고촌 지역 독거 노인 돕기



## 영어 독서 모임



## 군고구마 전도



## 떡 케이크 공방



—

**감사합니다!**



## 민주적인 교회를 위한 제언

배상필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사무국장)

### 1. 세상의 변화 - 기업의 ESG 경영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이 화두이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수적이다. ESG의 가치를 담아서 운영하는 기업은 이미지가 좋아져서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인데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 즉 착한 기업은 잘되고, 나쁜 기업은 도태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의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의 의사결정체계가 얼마나 이해관계자의 의사나 이익에 부합하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한 것이다. 기업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기업은 살아남고, CEO 1인이나 혹은 몇몇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기업은 사라진다.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 2.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의 '교회 건강성'

필자가 돕고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건강연)>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평적으로 동역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다. 목회자는 목회에 책임을 지고, 평신도는 교회 운영(행정)에 책임을 지며 사역을 한다. 건강연 교회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평신도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가 주로 설교, 목양 등 목회를 주로 하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해서 교회 운영(행정)에도 관여하고, 평신도도 설교나 목양 등의 목회에도 참여를 하면서 협력하는 구조이다.

건강연이 주장하는 교회의 건강성은 '제도적 건강성'을 말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주적인 운영'이다. 사람의 정신이 아무리 건전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일지라도 특정한 한두 사람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적 건강성 - 민주적인 운영'은 교회의 건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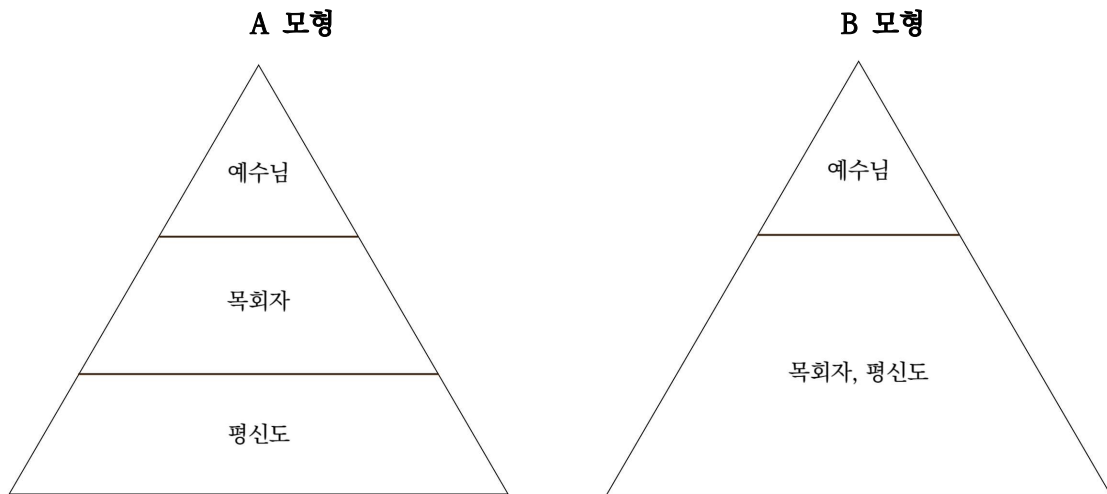
### 3.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는 시한폭탄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왕 등 전제군주가 권력을 독점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특정인(담임목사나 선임장로)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교회는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교회가 특정 지도자의 도덕성에 의존한다면 그가 실수를 하거나 초심을 잃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결국은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인간이 타락을 했고, 죄 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실수,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 4. 교회는 어떤 조직인가?

교회(ekklesia)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래 두 개의 조직 중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형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형이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개신교가 출발을 했지만, 가톨릭의 성직자를 개신교의 목회자가 대체하면서 여전히 목회자/평신도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

루터 역시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구분을 두었다.

*“모든 기독교인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직분으로 부름 받고 명령 받아야 한다. 이 부름과 명령이 목사와 설교자를 만드는 것이다.” - 루터의 시편 82편 해설 (1530년) -*

루터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설교는 소명 받은 목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능적인 위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기능적인 위계가 존재론적 위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와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당회장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을 하면서 행정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한국 교회 운영의 문제점

### 1) 제도적 미비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대의정치제도가 있지만 목사만 당회장의 자격이 있고, 회의의 의장인 당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의 한계가 존재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기업 회의에서도 대부분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의장이 부재 시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단에서 담임목사는 모든 치리회의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규정에 부의장이 없고 의장 부재 시에 회의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의장의 뜻에 반하는 논의 시 회의가 무산 될 수 있는 구조이다.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가 교인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더라도 장로의 추천권이 당회에 있기에, 많은 경우 담임목사가 장로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2) 당회 제도의 한계

당회에는 대부분 목회자와 장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50세 이상의 주로 남성들이 장로가 되기에 당회 시스템에서 젊은 층과 여성들이 배제된다.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과 교회의 미래인 젊은 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공동체의 결속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으로 당회 제도는 의사결정자와 사역책임자가 다른 데에서 오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사역을 주도해가는 교회의 직분자가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때 사역이 보다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3) 불투명성

당회(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회원이 아니면 회의에 참관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교회의 결정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되돌리기가 어렵기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4) 대의정치 제도(당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장로교회의 당회(감리교회의 기획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회의 신임 장로에 대해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하면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 담임목사와 선임 장로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 6.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 1) 교회의 민주적인 정관(규약)도입의 필요성

한국 교회 운영의 문제점에서 언급을 했듯이 장로교 등 교단의 헌법에서는 담임 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한다. 장로교회처럼 소수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민주적 회중정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필자가 최근에 경험한 한 침례교회는 교회의 장로도 없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교회 운영을 해가는 데 목회협력위원을 담임목사가 선임을 하고, 따라서 담임목사의 뜻에 반하는 위원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면서 담임목사 1인이 독단적 운영을 한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교단의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교회의 정관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담임목사의 절대적 권한으로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민주적인 운영을 원하는 교회라면 민주적인 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개 교회의 정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당회보다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요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른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회의 의지가 있다면 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그루터기 교회는 예장 통합 소속의 교회이지만 당회가 포괄적으로 사역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중심의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당회 제도를 유지할 때의 제언

당회 제도를 지속한다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당회 회의록 공개와 원하는 교인들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소통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7. 보다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 민주적인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

### 1) 평신도 신학의 보급

목회자가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평신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해도 많은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사역을 주도해가고, 그것을 돕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신도와 수평적 관계에서 동역을 하기 원하는 목회자일지라도 평신도의 이런 수동성과 의존성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워온 목회자와 평신도는 능동적/수동적 존재, 리더/따르는 사람, 가르치고/배우는 사람, 지시/순종하는 사람, 주체/객체의 관계이고, 교회 사역은 목회자의 사역, 평신도의 역할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하기에 평신도가 주체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은 ‘평신도 신학’을 보급하는 것이다. 평신도 신학은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신학이다.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하게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단 하나의 거룩한 백성(Laos)이 존재하는데, 이 거룩한 백성은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포괄한다. 그래서 평신도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평신도 설교의 도입과 확산

민주적인 운영만으로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평신도의 목회자에 대한 의존적 신앙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해왔고,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평신도는 그 목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평신도의 주체적 신앙, 자립 신앙이 중요하다. 평신도가 주체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설교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씌름하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신도들이 주체적 신앙인으로 세워질 때, 그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참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sup>교신</sup>

## 교회 운영을 관계적으로 고민하기

이재학 (하늘땅교회 목사, 작은교회연구소 소장)

### 들어가는 말-우리 문제 솔직하게 고백하기

1) 목회자 중심의 1인 구조 -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유지되었던 목회자 중심의 운영 방식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하는 지점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교회에는 성도라는 이름하에 각 직분에 따른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임직자들에게 잘 설명되거나 교육되지 않았기에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 동기, 과정, 결과가 목회자에게 집중된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각 지체들의 연합이라는 말은 서로 관계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방식, 합의를 통한 도출이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을 그냥 출석교인 정도로만 여기고 목회자 1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운영해 왔다. 이것이 주는 문제는 성도들의 자발적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빼앗았다.

2) 대형화로 인한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 약화 -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지점이다. 그동안 교회를 기능적인 역할로서 이해한 면이 많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사역에 헌신했는가?’, ‘나는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는 사람인가?’ 등등 그 기능적인(function)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이 그 역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만들었고 교회는 그 기능만 감당하면 되기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being)를 고민하기보다 존재의 방식(doing)을 하려는데 치중하였다. 이것이 존재 방식으로서 많은 일은 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너짐으로 인해 마치 교회가 사회복지센터와 다르지 않게 만들었다. 대사회에 대한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진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짐은 물론이려니와 관계적 교회가 더 이상 관계는 없어지고 개인구원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였다는 말이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코로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교회는 운영에 있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 은혜로 덮어버린 그릇된 관행들 -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문제이기에 도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덮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것이 목회자의 부정을 묵인하도록 했으

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을 약화시켰다. 신앙과 삶의 괴리, 신학과 신앙의 부조화, 교회와 사회의 단절, 성도와 성도의 불연속성을 앞당겼다. 지금 교회의 윤리성과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이유가 무조건 '은혜로'라는 생각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 되지 않고 늘 '은혜로'라는 관행이 앞섰다. 이것이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대로 작동하여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용인하게 만들었다.

## 2. 교회 운영의 바른 길을 위한 전제 조건들

### 1)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론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이 많은 일에 있어서 선행적인 물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교회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속속들이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며 실천적 대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맞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기준이 되고 이것은 다양한 논쟁만 일으킬 뿐, 방향 없이 달리는 기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욱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왜 모여 있는 교회인가?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흠여짐을 지향한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교회를 3중 구조로 설명하였다. 부름 받은 공동체, 세움 받은 공동체, 보냄 받은 공동체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교회는 부름 받은 모이는 공동체지만 결국 보냄 받은 흠여진 공동체임을 가르쳐준다. 교회는 단순히 모였다는 것만으로 당위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모여 있는가에 대한 것이 교회의 질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전제를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다. 이 말은 많은 절차와 과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다.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모여서 흠여지기까지의 수도 없는 질문 속에 공동체의 지체가 함께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다.

### 3)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가?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관계적이다.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관계적이다. 성경에 열거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성도의 관계를 의미한다. 결국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이(間), 즉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는가의 문제 속에 존재한다. 더욱이 매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수없는 관계 속에 더욱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지체의 건강성이 한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기에 서로 서로 잘 세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터 C. 하지슨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 깨진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말은, 교회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임을 가르쳐준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있는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들 안에 운영 방식이 더 이상 민주적 절차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란 세상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고 모인 공동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평이며, 그것은 막힌 답을 열고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 관계의 아름다움과 성숙의 열매를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운영 방식 역시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며, 서로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3. 교회 운영의 방향들

#### 1) 서로 합의해 낸 규례나 정관 만들기

이 일은 개척 초기부터 성경적, 신학적 고민 속에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다. 나중에 어느 정도 구성원이 모이면 하려 하지만 그때는 늦은 감이 있다. 시작부터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정관 안에 녹아지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작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한다. 새로운 구성원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사회적 담론으로 인해 교회 역시 새롭게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정이 생긴다. 정관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 방식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 규칙이나 정관이 없으면 혼선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는 것은 함께 지킬 정관이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점철되어 운영되는 방식은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다.

#### 2) 재정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재정 문제이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보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사용하는 교회에게는 투명함이 필요하다. 돈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스스로 유혹의 끈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재정부는 중복해서 감사하고 재정 집행을 볼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4명 정도가 기본이다. 물론 차세대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을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은 어른들의 관리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관리이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청년일지라도 재정을 관리하고 계수하고 입출금하고 집행하는데 관심 갖고 함께 하는 지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도 한 일원이며, 그도 다음을 위하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필요하다. <하늘땅교회>는 매월 홈페이지에 재정 공개를 하였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얻어내는 일이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1년에 두 차례 공동회의를 통해 재정 예산과 집행에 대한 보고 및 심의를 거친다. 더 나아

가 목회자의 생활비와 활동비, 그리고 각 부서의 재정 집행을 조정하여 다음세대가 세워지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재정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목회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3) 목회자 대우와 은퇴 준비 미리 하기


이것 역시 많은 교회의 마지막 고민이다. 하지만 개척 때부터 정해놓은 정관의 약속이 있다면 이것은 비교적 매끄럽게 해결된다. 몇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다음 후임자를 세우지 못해 목회자가 교회 건물을 파는 일들이 생긴다. 자신의 은퇴를 명목으로 하는 일이라지만 함께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지역이나 사회를 향해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한국의 경우 새로운 교회의 개척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교회가 후임자에게 잘 위임되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을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는 일이다. 이것을 이음의 리더십이라고 명명하겠다. 평생 땀 흘려 세워진 교회가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는 외등(外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임자는 그 정신과 철학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은퇴 목사에 대한 처우다. 이것 역시 미리 준비해 두면 둘수록 잡음이 없이 평화로운 이음의 리더십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 공동체가 투명하게 이 문제 역시 정관을 통해 약속을 해 놓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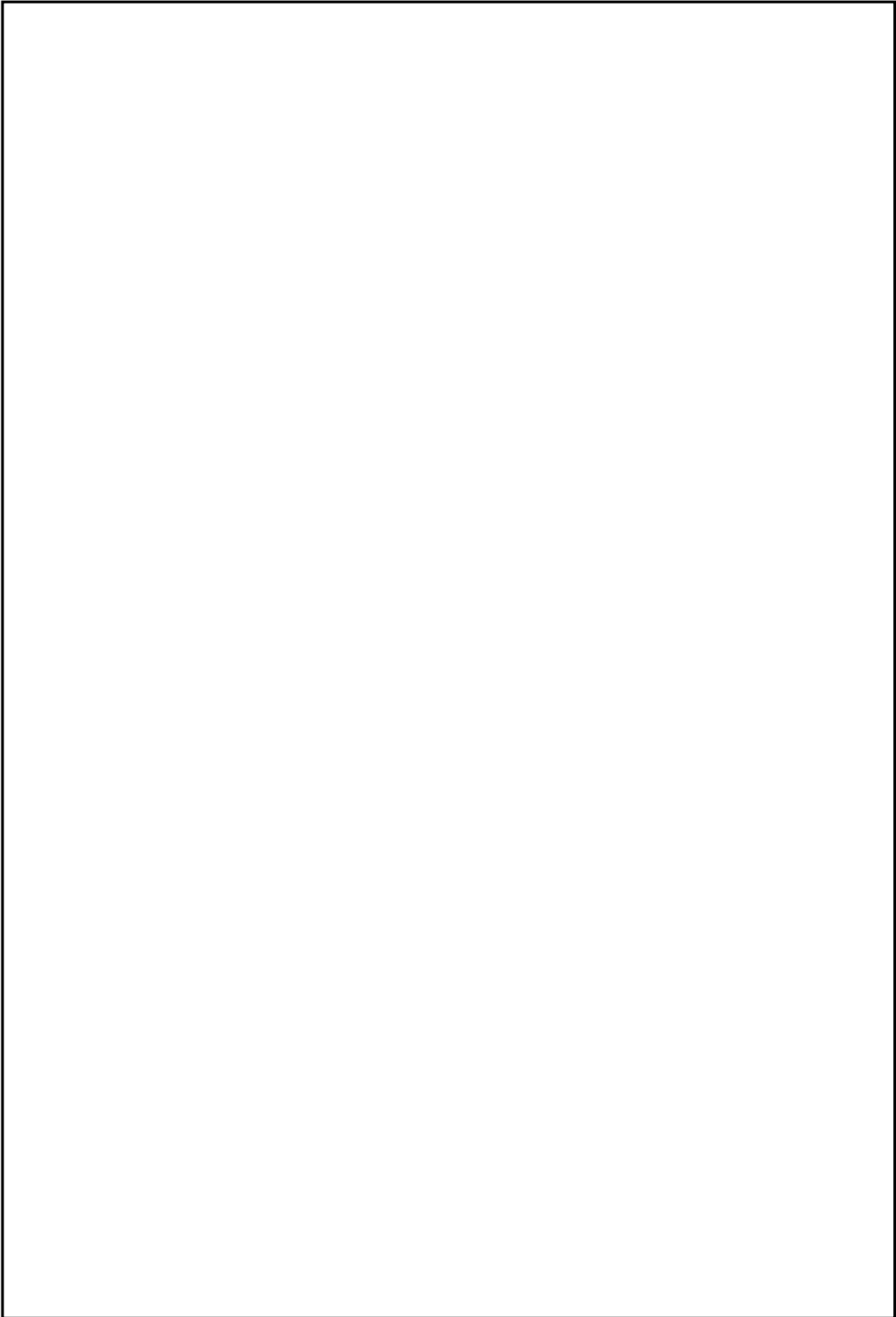
### 4) 교회 운영에 있어서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식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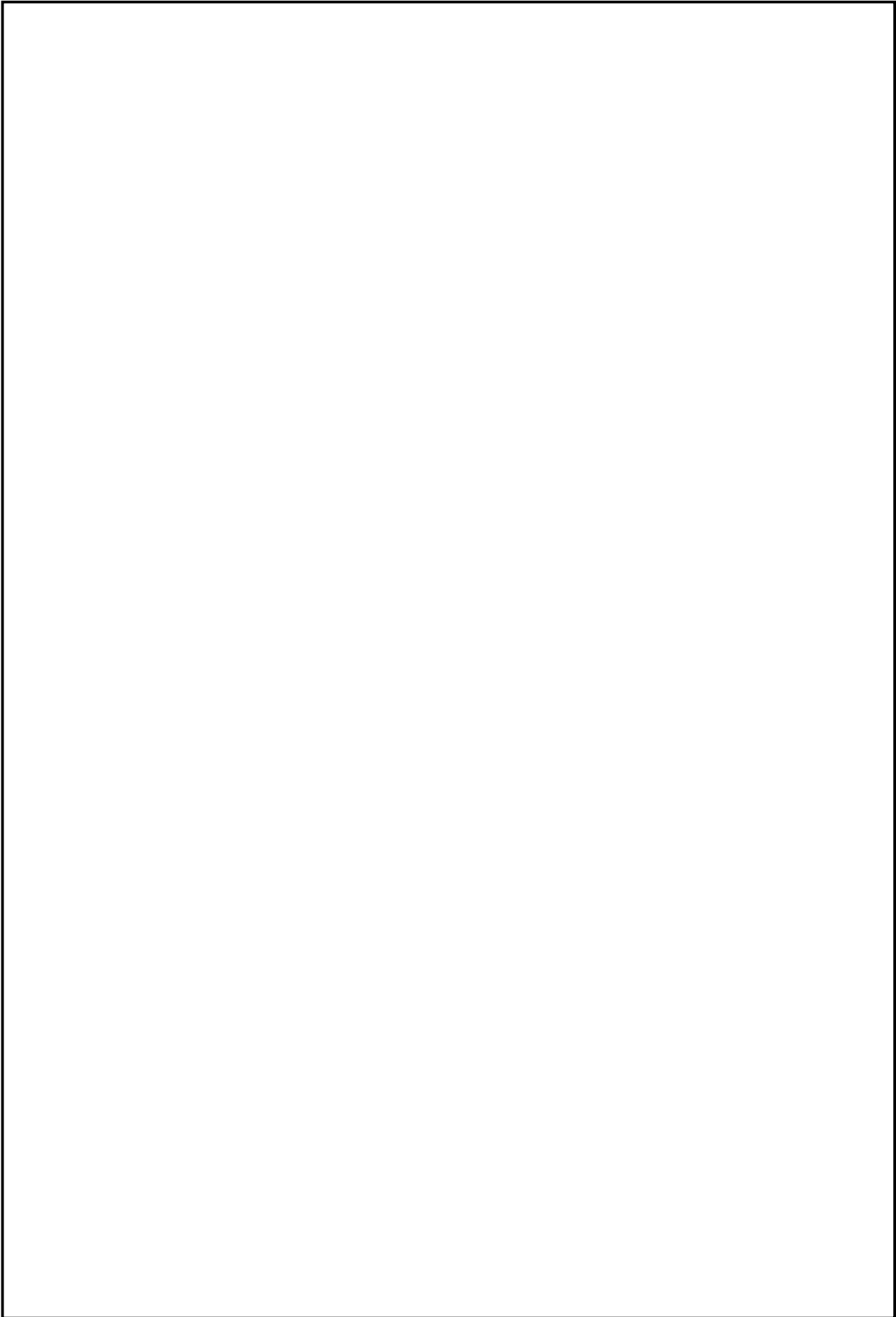
교회의 민주적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교회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출발로 한다. 각 지체의 연합이 교회이며, 각 지체의 모임이 교회이다. 그렇다고 보면 각 지체는 하나같이 중요하다. 각 지체의 의견은 소중하다. 각 지체의 생각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가족으로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 <하늘땅교회>는 1인 1사역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5주가 있는 월(月)에는 식사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형태로 방법을 찾는다. 물론 결정해야 하는 일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건설적으로 나눌 대화거리를 도출하고 찾아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이 모여면 함께 바라보는 비전으로 인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결정되는 것을 본다. 더욱 자발적 신앙을 강조하기에 재정적인 참여에 대해서도 자유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욱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젊은이 가정도 예외 없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회의를 통해 일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에서 다룰 이야기가 매끄럽게 평상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



#### 4.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는 민주적인 교회의 운영 사례나 방법 등을 나누는 자리였다.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다. 교회는 각 지체들의 연합이기에 이 사실만으로 누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일이기에 더 성숙함을 요구한다. 그 동안 많은 경우 정관이나 규칙이 없이 목회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어 왔다. 이것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곳이다. 각 개체였던 내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의 지체가 되면서 서로 발을 맞추는 훈련을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다. 그 관계 속에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관계 속에 각 지체를 세워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이먼 슈락(Simon Schrock)의 말로 마무리한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에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로’와 ‘피차’로 표현된 쌍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